

관음종 흥법사 매각·이전 놓고 '시끌'

남양주 봉선사에 이어 의정부 흥법사에서도 북한산(사패산) 보상금 문제가 '뒤날' 이 됐다.

前 흥법사 주지 지섭 스님은 8월 14일 서울 조계사 인근에서 간담회를 열고 "2006년 11월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스님이 당시 주지였던 나와 신도들 모르게 도로공사와 토지 및 지장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17억2804만여원을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흥파 스님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2007년 6월 30일까지 흥법사를 이주시키겠다고, 만약 이행하지 못할 경우 법정이자 20%를 포함해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주장했다.

지섭 스님에 따르면 흥법사는 1986년 9월 한일불교문화교류지원에서 한일불교 우호 진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본 친인종 스님들이 중심이 돼 모금한 돈으로 기존 사찰인 보광사를 구입해 개명한 사찰

지섭 스님 "신도 모르게 17억여원 수령" 흥파 스님 "흥법사는 내게 기부된 사찰"

이다. 이후 흥법사를 구입한 정학권 박사의 병환으로 제대로 관리할 수 없게 되자 일본 마키오 스님, 에스페 스님,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사무총장 흥파 스님(관음종 총무원장)을 공동명의로 등기했다.

2000년 12월 북한산 관동도로 사패산 구간이 착공된 후 불교계가 일제히 반발했다. 흥법사도 이 구간에 포함돼 반대 운동에 뛰어들었다. 2003년 5월 범불교 차원의 투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흥법사를 관음종 재단으로 등기했다. 흥법사와 도로공사는 2005년 이전 비용으로 25억4200만원에 합의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불거진다. 지섭

스님은 "흥파 스님이 당시 주지였던 나와 신도들 모르게 흥법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전 각서까지 쓴 뒤 증여 형식으로 11억3000만원에 구입한 부산 문현동 소재 무문사로 갈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섭 스님이 반발하자 2007년 3월 흥법사 주지에서 해임됐으며 제직됐다.

지섭 스님은 "흥법사를 현 위치 인근으로 이전시키고 흥파 스님은 종단협 사무총장과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의 이사장직에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흥파 스님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 흥법사는 한일 불교문화교류협회 차원이 아닌 친인종 차원의 기부"라고 주장했다. 흥파 스

님에 따르면 원래 자신에게 기부된 사찰임을 인정해 정대 스님도 관음종으로 소유권 이전을 패하 승낙해 줬다는 것이다.

흥파 스님은 또 "도로공사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지섭 스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종정 스님 앞에서 무문사로 이전하기로 서약을 하기도 했다"며 서약서를 공개했다.

사찰 이전과 관련 "지섭 스님도 이사 및 피해보상 명목으로 6억원 중 1억원을 시행사인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로부터 수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섭 스님은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에 대해 "종정 스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서 그랬다"고 말했다. 1억원을 받은 것도 "이전 비용이 아닌 피해보상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지섭 스님은 흥파 스님을 상대로 '부당이익반환청구' '주지재임무효확인' '채권가압류신청' 등을, 흥파 스님은 지섭 스님을 상대로

'퇴거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사무총장 남정 스님은 "당연직 이사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14일 이 문제를 보고하자 특위를 구성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회는 8월 29일 오후 3시 이사회를 개최해 특위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봉선사도 북한산 보상금 문제 등이 불거져 조계종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 산하에 '사패산 및 봉선사 관련 의혹 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불교계가 환경운동 자체 목적이 아닌 '값값 부풀리기' 차원에서 환경운동에 나섰으며, 보상금을 둘러싸고 '자중지란'에 빠져들고 있다는 비난이 직면하게 됐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news.com

'초심'서 제주 관음사 사태 관련자 징계 결정 중원·진명 스님 등 '떨빈'

제주 관음사 사태와 관련 회주 중원 스님에게 '떨빈'의 징계가 내려졌다. 법원도 관음사 회주 중원 스님 등이 관음사 및 보현암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조계종 초심회계원(원장 종길)은 8월 17일 제52차 심판부를 열고 관음사 회주 중원, 전 주지주무대행 진명, 전 교구선거관리위원장 현공, 교구선거관리위원 오성 스님에게 '떨빈'의 징계를 내렸다. 교구선거관리위원 세광 스님은 '제직'.

또 전 주지 용주 스님은 공권징지 7년, 교구선거관리위원장 정해, 전 재무부장 유정, 교구선거관리위원 도문 스님은 각각 공권징지 10년을 결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

장 윤현주)는 관음사 주지주무대행 시공 스님이 제기한 '주지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로 17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음사 회주 중원, 전 주지주무대행 진명 스님과 하행사, 권오남, 문인종희 등은 △관음사 및 보현암 입구, 진입로 등을 조직폭력배, 경호원, 신도 및 승려 등을 동원해 봉쇄하는 행위 △관음사의 주지주무대행자(시공), 관음사 소속 승려 및 직원이 관음사와 보현암을 출입하는 것을 저지하는 행위 △관음사 주지직의 인수인계에 필요한 인장, 장부, 재산목록의 양도를 거부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남동우 기자

"한글통일법요식 활성화를"

포교정책연찬회 개최

한글통일법요식 활성화를 위한 포교정책연찬회가 8월 3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도신)이 개최하는 이번 연찬회는 2차의 연찬회 중 첫 번째. 연찬회에서는 일종의식을 중심으로 음악(은울)적인 면과 문화적인 면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이 무엇 인지를 논의한다.

제1주제는 '문화적인 면에서 바

라분 한글통일법요집-일종의식을 중심으로'이며 한글법요집을 발간했던 이성은 정우석 대표가 발제한다. 여기에 양명 사나사 주지 화암 스님과 불교방송 문태준 PD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2주제인 '음악적인 면에서 바라본 한글통일법요집-일종의식을 중심으로'에서는 이보형 한국고전음반연구회 회장이 발제하며, 서울 대성사 주지 법안 스님과 권오성 한국불교음악학회 회장이 토론한다.

남동우 기자



자비의 통일신발 선적식. 사단법인 참여불교운동본부(이사장 정여)는 8월 17일 부산 여의선원 앞에서 '자비의 통일신발' 선적식을 개최했다. 부산지역 불자들의 모금액으로 마련된 운동화 4000켤레는 8월 22일 인천항에서 출발해 북한 남포항에 도착한 뒤 조선불교도연맹에 전달될 예정이다. 참여불교운동본부는 지난 2004년부터 북한에 어린이용 신발을 보내고 있다. <사진제공=참여불교운동본부>

조계종 총무원장 장학생 불교계 인력풀로 활용

조계종 총무원장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불교계 인력풀로 활용될 전망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8월 16일 중추회의를 열고 총무원장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을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회의에서 장학금 수혜자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불교계 인력풀로 활용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불교계 인재 육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의했다.

포교원은 매년 인재봉사 일원으로 종립대인 동국대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에도 1차로 23명이 선정돼 1인당 200만원씩 총 4600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선정된 학생들은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진관사에서 열리는 수련회를 거친 뒤 장학금을 받을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일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6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털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디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예시야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총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대전총부지사 : (043)732-5560 영주지사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력으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력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상징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감독: 김동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영통사 성지순례 제한 풀릴까 이달 3차례 허용...정상회담 앞두고 교류확대 기대 높아

통일부가 월 1회로 제한했던 천태종 개성 영통사 성지순례를 8월에만 3번이나 허용해 성지순례 제한 방침이 철회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높다.

천태종은 8월 16일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 11·18일에 이어 25일에도 영통사 성지순례를 추가로 진행한다'며 "28일부터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영통사 성지순례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영통포럼 노정호 사무총장은 "통일부가 남북정상회담에 즈음해 유연성을 보여 이달 중 두 차례 더 성지순례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북측이 정상회담을 전후해 여러 민간행사를 일시 중지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방문, 영통사 성지순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개성 영통사 성지순례를 월 1회, 500명씩으로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례화를 승인했으나 천태종측은 주 3회 등 방문횟수 확대를 계속 요구해 왔다.

천태종측은 18일 월말철석과 백중 행사에 이어 25일 개성 영통사에서는 성지순례 행사 및 남북정상회담 성공기념 범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25일 오후 2시 개성 시내 민속어관에서는 남북간 문화교류 확대방안을 주제로한 토론회도 마련될 예정이다.

김주필 기자

바로 잡습니다

본지 640호 3면 경북도 조계종 5대 본사 문화재지킴이 활동 선언 기사 중 '김상준 경북도지사'를 '김관용 경북도지사'로 바로 잡습니다.

이동경 영연2부 부장 △김현철 영연1부 과장 △박원범 영연2부 대리 △표정희 대리 △전보 △김학희 영연1부장 △김원우 기획사업부 차장 <8월 1일자>

▲편집국 △일연대 부국장 ▲김주필 취재부 부장 ▲강지연 취재부 차장 ▲남동우 취재부 차장 ▲여수영 취재부 차장 ▲영연부 △

불교와 심리학의 만남

마음챙김명상 수련 시 제기되는 물음과 답
마음챙김명상 108가지 물음
 정현갑 외 공저 | 248면 | 12,000 원

내면에서 빛나야 할 직권을 찾아 떠나는 여행
명상심리치료입문
 마튜 플릭스타인 저 | 고희임 외 공역 | 224면 | 13,000 원

붓다의 심리학
붓다의 심리학
 Mark Epstein M.D 저 | 천현수 외 공역 | 300면 | 15,000원

완전한 자기 구현을 위한 마음챙김 명상법
마음챙김 명상과 자기치유
 존 카밋트 저 | 정현갑 외 공역 | 384/352면 | 10,000원

국내 최초의 동양상담학 개론서
동양상담학 시리즈 1~9
 박성희 저 | 각권 100면 내외 | 세트 63,000 원

● 마음과 상담 ● 불교와 상담 ● 선문명과 상담
 ● 노아와 상담 ● 비계유학과 상담 ● 도덕학과 상담
 ● 모라타 상담 ● 내이전 상담 ● 동사상 상담

“학자사는 깨끗한 마음을 드립니다.”

합지사 Tel 02-328-1500 Fax 02-324-2345 http://www.hakjisa.co.kr